

용서의 비밀

요한복음 20 장 19-23 절

2021 년 4 월 18 일

종려주일, 부활 주일 그리고 부활 주일 다음 주일에는, 성 유머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 부터, 주기도문을 한 줄 한 줄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어서, 주기도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함께 묵상할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는 유머 중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년이 답하기를, “제가 압니다.” “뭐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 “죄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1 장 18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다윗은 시편 51 편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 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며,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생활을 하라는 가르치십니다.

1

질문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왜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요 딸로, 양자와 양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 조건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쳐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질문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왜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런 저런 죄들을 지으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은혜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 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합니다. 오호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경지에서 구해 줄 것인가?” 탄식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환영받았지만, 완전히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일이 된다” 사도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요일 1:8, 10)

우리가 매일 그리고 수시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터리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자람에 빠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에 빠집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습니다. 야고보는,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 타인에 대한 무관심하고 냉정합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돈 벌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돈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착각하고, 돈 중심을 삶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 어느 것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상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듯이 매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교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16 시간, 아침 6 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 시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16 시간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과 생각은 없었는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죄.. 무의식적으로라도,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내려 놓고, 다음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동방정교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 기도”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 번, 20 번 반복하여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1

두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를 붙여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왜, 이 구절을 덧붙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마다,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했는지 돌아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온전하려면, 먼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했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 장에 예수님의 비유 기억합니다. 수억원 상당, 일만 탈렌트의 빚을 탕감 받은 사람, 자기에게 일백데나리온, 백만원 정도 빚을 진, 동료에게 빚을 빨리 갚지 않는다고 괴롭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잘못과 죄를 용서함 받고 사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냐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까?” 그 때 예수님은,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21-22) 말씀하셨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용서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 490 번까지 세어가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490 번까지 세어가면서 용서하다가, 491 번째 되며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예수 제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고 권고하셨습니다. (엡 4:32)

골로새서에서,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골 3:12-14)

예수님께서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2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 장 36 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고 하셨습니다.

1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이토록 원하셨을까요? 용서가 마음의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한 이웃 간에, 더 나아가서 공동체 간에도, 종족 민족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 때로는 원한이나 증오로 심화합니다. 원한과 증오가 쌓이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 지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미움, 분노가 우리를 잡고, 우리들은 결국,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노예 생활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바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길은 바로, 용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집을 나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어떻게 집을 떠난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신문에 광고를 다음과 같이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 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지를 헤밍웨이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처음으로 주신 말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용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입김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용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많아서, 용서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용서 사역을 하셨듯이,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하나님의 용서 사역에 동참하여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하나님의 용서 사역에 즉,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매일 용서 받고, 매일 용서하고 사는 길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사는 길입니다. 용서 받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여정, 감사하며 기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